

정부, 청년 일자리대책 '수요자 맞춤형' 으로 개편 일자리 '미스매치' 감소 기대

“취업난 해소는 역부족”

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업의 인력 수요와 채용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 지원 체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등 기존 대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6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정부는 직접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취업 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쪽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또 고용 보증을 기업 대신 취업청년에게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17개 고용준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신설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연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분야별 채용 행사도 올해 60여차례 개최한다.

또 청년 구직자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대학별 취업지원기구, 새일센터 등 어느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과 각종 고용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일자리 검색, 신청, 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업과 학교가 주도하는 직무교육과 직장 체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공공기관 주도로 청년들의 직무교육·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기업·대학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회맞춤형 학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턴 수료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을 근속하고 일정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

을 지원해 모두 12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 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개인' 역할에 주력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에 있는 일자리가 수요자에게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에 있는 일자리를 청년이 관심을 갖고 취업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결국 공공부문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 활성화, 경기 대책, 규제 개혁 대책 등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청년 취업 시장이 팽팡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인턴 수준의 대책으로는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주 기자



인디 디자이너가 만든 선글라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6 F/W 인디브랜드페어'에서 바이어가 인디 디자이너가 만든 선글라스를 착용해 보고 있다.

익산 다송교차로 개선공사 마쳐

오늘부터 차량통행

국도 23호선 익산 다송교차로 교차로로 신설공사가 마무리됐다. 익산지방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도23호선 익산-함열 다송교차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돼 28일 오후 2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

전주국토사무소는 국도 23호선과 지방도 723호선이 만나는 다송교차로의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신호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다송교차로 고가도로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반복되던 지·정체

가 사라지고, 지방도와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분리로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국토사무소 김상범 소장은 "다송교차로 입체 고가도로 개통으로 이 일대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주국토사무소는 앞으로 더 안전한 국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국토사무소는 입체 고가도로는 28일 개통되지만 주변 연결로 설치 및 부대시설 정비 등 잔여공사가 6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농촌여행 스탬프 앱' 출시

내달 1일~10월 31일 운영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농촌여행 스탬프' 스마트폰 앱이 출시 운영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농촌여행 스탬프'는 전국 50여 곳의 엄선된 농촌체험마을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모바일 스탬프를 발행해주는 서비스다. 스탬프 1개를 받으면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5,000원 상당)이 매일 말 제공된다.

서비스 기간 이후 스탬프 발행 실적에 따라 태블릿PC, 키자니아 입장권, 으뜸촌 기차여행 가족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도 제공한다.

스탬프를 받으려면 스마트폰에 '농촌여행 스탬프'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참여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 운영자에게 체험수행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앱은 5월 1일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iOS 스마트폰용 앱은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레포츠, 자연생태,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후후 외국인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체험관광포털 웹툰(www.welchon.com)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031-299-785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광영 기자

도내 건설폐기물업체 시설 개선 의지 부족

시정명령·과태료 처분 받고도 규정 위반 여전

전북도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에 앞서 도내 건설폐기물업체에 대한 시설 관리 개선 의지가 요청된다.

(본지 27일자 1면 보도)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A' 건축폐기물업체는 최근 행정당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찾은 해당 업체는 세류시설에

서 흙탕물과 기름성분의 오폐수가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주변 토양으로 흘러들고 있어 주변 토양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었다.

또한 폐기물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방진벽은 관리 부실로 인도쪽으로 기울어져 사고 위험이 컸다.

게다가 법으로 규정한 방진벽 10m 설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일부 구간은 아예 방진벽도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설

폐기물업체 보주기 특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와관련, 해당업체 관계자는 "펜스를 규정대로 설치하면 바람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 낮게 설치했다. 설치되지 않은 곳의 펜스 설치와 위험한 부분에 대한 정비 등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업체는 덕진구청으로부터 지난 2014년 사업장 생활폐기물 기록상황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2015년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신광영 기자

전북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비 2%p 상승

최근 하락이나 보합세를 면치 못하던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다소 회복됐다. 지역 소비자들의 '향후 경제상황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주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저축 여력은 부족해보여 여유로운 생활은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중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

는 100으로 전월(98)대비 2%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105)부터 보합세나 하락세를 유지했던 소비심리가 처음 상승한 것이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수는 현재 경기판단(65→71)과 향후경기전망(76→85)이다. 취업기회전망(75→84)과 임금수준전망(111→115)도 뚜렷한 상승폭을 보여 지역민들은 향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수입이 늘어도 지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넉넉치 않아 저축여력은 부족해 보인다.

현재생활형편(92→91)과 생활형편전망(97→98)이 전월과 비슷한 가운데 가계부채전망(92→96)과 가계저축전망CSI(95→93)는 기준치(100)를 밑돌며 부정적인 심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리(금리수준전망CSI(94→95))에 대해서도 전월에 비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영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소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